

「話してみよう韓国語 2016~17」

一般スキット部門 <チムジルバン>

A : 韓国人 B : 日本人

A : 留學生活はどう? 寮には慣れた?

B : うん! 楽しいよ! でも、日本にいたときみたいに、
毎日お風呂に浸かれないのがちょっとね。

A : そうなんだ。じゃあ、チムジルバンに行ってみる?

B : チムジルバンってなに?

A : お風呂とかサウナがあって仮眠もできる、日本のス
ーパー銭湯みたいな所だよ。

B : それはいいね! じゃあ、寮に帰ってタオルとか準備
してくる!

A : 大丈夫。全部向こうにあるから! このまま行こう!

(お風呂からあがって休憩所で)

B : あー! 本当に気持ちよかった!

A : そうでしょう? とこでチムジルバンといえば卵とシッ
ケ! はい、どうぞ!

B : そうなんだ? 小腹がすいてたんで、ちょうど良かった。
美味しそう。

(A が B の頭で卵を割る)

B : 痛っ!!! 何するの! ?

(以下自由創作)

「함께 말해 봐요 한국어 2016~17」

일반 스킷 부문 <찜질방>

A: 한국인 B: 일본인

A: 유학 생활은 어때? 기숙사는 익숙해졌어?

B: 응! 재미있어!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매일
목욕을 못 해서 좀 그래.

A: 그래? 그럼 찜질방에 안 가 볼래?

B: 찜질방이 뭔데?

A: 목욕탕도 있고, 사우나도 있고, 잠도 잘 수
있는 일본의 건강랜드 같은 곳이야.

B: 딱 좋네!! 그럼 지금 기숙사에 가서 수건
가져 올게!

A: 괜찮아. 거기에 다 있으니까! 몸만 가면 돼.
지금 바로 가자!

(목욕 후 휴게실에서)

B: 아~! 정말 몸이 날아 갈 것 같다!

A: 그렇지? 근데 찜질방에 오면 뭐니뭐니
해도 역시 삶은 계란하고 식혜지.

자! 먹어 봐!

B: 정말? 출출한데 잘 됐네. 맛있겠다.

(A 가 B 의 머리로 계란을 깬다)

B: 아! 뭐 하는 거야?!

(이하, 자유창작)